

## 2019년 7월 시청자위원회 전체회의록 (서면회의)

### 1. 편성·보도 : 대전 MBC 뉴미디어

뉴스를 접할 수 있는 매체가 기존 신문과 TV를 넘어 스마트 폰을 통한 다양한 SNS 채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비롯하여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플랫폼을 통해 꾸준히 시청자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뉴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시청자들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뉴미디어만의 콘텐츠나 팔로우를 늘릴 수 있는 기획, 이벤트 등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인스타그램을 통해 대전지역 날씨와 온도, 불쾌지수 등 이미지 컷을 제작해 업로드 하는 등 기존에 TV 방송에 국한되었던 콘텐츠 에서 다양한 매체 성격에 맞는 콘텐츠 제작을 시도해 본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김선재 위원장)

답변 : (편성) 현재 대전MBC는 1인 크리에이터를 위한 제작 공간을 준비 중이며 완공 되는대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콘텐츠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요가 예상되는 정치시사와 중장년을 위한 건강, 아날로그 음악 감상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보도) 대전MBC 뉴스는 유튜브와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3만여 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비롯한 많은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과 장비 등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더 나은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2. 교양 : 생방송 아침이 좋다

<생방송아침이 좋다>는 시의적절하고 콘텐츠 중심의 생활정보들이 많아 보기 좋다. 인터넷 다시보기로도 보기 좋은 콘텐츠들인데 다시보기 목록표에 낱짜로만 표기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렵다. 주제 등을 제목에 표기하면 찾아보기 좋을 것 같다. (양흥모 위원)

답변 : 다시 보기에 들어가기 전에 노출되는 <생방송 아침이 좋다> 프로그램 메인 페이지에 일자별 주요 내용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3. 교양 : 크리에이티브성장기 독전

2019. 07 02 재미있게 봤습니다. 처음보다 프로그램이 많이 안정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내기 크리에이티브들을 초반에 좀더 시청자에게 친절히 소개해주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권부남 위원)

새싹 크리에이티브 올메와 농중일기를 마지막으로 시즌1이 마무리되었다. 보도나 교양이 아닌 예능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여 유튜브와 연계된 기획을 시도한 점 등 기존의 지역방송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된다.

대외적 효과로는 대전MBC의 이미지 쇄신, 시청자들의 친근감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효과를 들 수 있다. 참신하고 젊은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정체되어 있는 지역방송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코디와 크리에이티브의 만남과 진행과정에서 대전MBC의 다양한 공간 및 구성원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지역방송사에 대한 친근감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코디로 출연하는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리포터 등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제작자의 매너리즘 탈피와 새로운 시도에 대한 동기부여, 한정된 인적자원의 활용 가능성 등이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제작자와 수용자가 가진 지역방송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또한 아나운서 및 기타 진행인력 자원의 새로운 캐릭터 탐색 및 역할 다양화 측면에서도 제한된 소수의 인력으로 방송제작을 하는 환경에서 의미 있는 부분이며, 회를 거듭할수록 MC와 패널들의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게 흥미롭게 이루어져 어색하고 다소 딱딱한 지역방송 특유의 분위기와는 차별화되었다.

다만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고려한 프로그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청자게시판이나 참여신청 코너에 게시물이 전무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새싹 크리에이터 중 반응이 좋았거나 구독자가 많은 출연자를 아침방송 등에 출연시키는 등의 다양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다양한 소재와 이야기를 가진 크리에이터 섭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보편적 이야기도 좋지만 물리적 또는 심리적 지역성이 담겨 있는 콘텐츠가 지역방송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더 새롭고 강력해진 시즌2를 기대합니다. (양선희 위원)

답변 :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평가에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체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부분과 아쉬운 부분에 대한 평가가 공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시즌1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시즌2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향후 시즌2로 돌아온다면 한층 더 성장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 교양 : 금의 전쟁

2019. 07. 23. 제목만 봤을때는 대전의 특성을 담은 특집다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있는 금을 소재로 대전의 조폐공사나 화폐박물관등을 연계하여 최근 금의 동향까지 다뤄 매우 흥미롭게 봤습니다. (권부남 위원)

답변 : 긍정적인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의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작, 방송 예정인 다양한 다큐멘터리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5. 교양 : 건강플러스

무병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요즈음 현대인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에 대한 중장년층의 관심은 건강 염려증이라는 또 다른 신종 정신건강 병명이 확산될 정도로 일반 시청자들의 궁금증과 관심도 많아 건강플러스는 일반인의 건강상식과 좋은 음식 소개 등의 측면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생각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률적인 전문적 병명에 대한 접근보다는 봄이나 여름 등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계절적 건강문제,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건강 상식을 전달하였음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플러스에서 전문가 패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시청자들은 지명도 높은 패널의 지식 전달에 믿음을 더해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또 다른 정신건강의 유발하는 역기능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진료하거나 처방하는 부분에 방송화면 분량이 많은데 전문적인 의학지식의 전달보다는 간단한 진단체크나 건강 상식과 그에 맞는 식사요법, 좋은 식재료, 음식 등의 소개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순서가 식이요법 등이 소개되고 전문적인 건강상식이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김선재 위원장)

답변 :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건강플러스의 경우 출연 병원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의견 참고해 더 양질의 건강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 교양 : 다크에세이 그 사람

2019. 07. 24. 스무살 현빈이의 캔버스

여러 지역이 공동으로 만든 다크로 시각 장애를 가진 청소년 현빈이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이 이 다크를 통해 도전을 가질수 있겠다는 생각과 청소년시청자들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장애친구들을 이해할수 있는 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권부남 위원)

2019. 7. 4. 잘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그려보는 그림

시각장애 1급인 미대생 신현빈 씨가 주인공이었다. 화면의 색감이 따스하면서 풍부해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다크에세이라는 특성이 잘 전해졌던 것은 제작진이 카메라 너머의 신현빈 씨에게 인간적인 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방송에서 장애인을 그려내는 방식이 ‘그림에도 불구하고 노력하는 사람’ 그가 처한 환경을 강조하고 그가 느끼는 절망과 그림에도 그가 쏟아 붓는 노력을 대비해 억지스럽게 감동을 자아내는 것에 가깝다면 다크에세이 그 사람은 사람의 다층적인 정체성을 섬세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자연스러운 감동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신현빈 씨가 실습 시간에 “그림 속에서 밖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도 한 번 해볼 생각이고, 달리는 사람의 몸을 꺾어서 보는 거...”라고 말하며 자신의 작업 방향에 관한 말을 할 때 인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커졌다. 이 프로그램이 출연자를 소외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가진 출연자들을 섬세한 시각으로 보고 성심껏 담아주었으면 한다. (서한나 위원)

답변 : 평가에 감사드립니다. 휴먼 다크의 목적에 부합하게 좀 더 인간미가 살아있는 우리 이웃의 다양한 주인공을 만날 수 있도록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7. 교양 : 테마기행 길

저는 매주 금요일 방송되는 '테마기행 길'을 아주 재미있게 즐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위 프로그램을 볼 때에는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일상에 지친 시민들은 누구라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위 프로그램을 보면서 좋았던 것은 현지의 문화해설사 또는 현지 주민 등이 출연하여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해 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여행을 할 때에는 그와같은 전문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주봉씨의 맛깔스러운 진행은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 프로그램을 이렇듯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요즘 해외여행지 등에 다니며 촬영하는 예능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 때문입니다. 사실 해외여행지 등에서 촬영하는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거부감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사족을 달자면, 위 프로그램이 '6시 내고향' 같은 류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6시 내고향'같은 프로그램도 나름 자기색깔과 순기능이 있지만 사실 질적으로 뒤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테마기행 길'이 우리나라 곳곳에 숨겨진 보석같은 여행지와 그 속에 간직된 역사와 문화를 좀더 전문적으로 발굴해 내고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자리매김되기를 바랍니다.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대전mbc 관계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김병구 위원)

답변 : 지적 감사합니다. 제작을 담당하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가급적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12개사가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보니 인력여건이 제각각인 것처럼 제작품질도 들쭉날쭉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 공동 제작사와 공유해 전체적으로 고르고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8. 교양 : 내가 그리는 세상

2019. 7. 20.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정보공개청구 방법

퍼블릭 액세스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로테이션 방식으로 제작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다. 첫 번째는 충남대 학생들의 제작물로 인포그래픽 등은 기성방송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그러나 인터뷰이들의 인적사항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웠다.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내용을 다루면서 취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아이러니랄까?

또한 아마추어 학생들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내레이션의 톤이 너무 낮아 전체 프로그램 및 인터뷰이들과의 톤 차이가 커서 어색했다. (양선희 위원)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며 이끌어낸 방송이 신선했습니다. 언론관련 학생이 편집한 영상으로 다른 방송에 비해 전반적인 방송의 구성, 흐름이나 인터뷰를 진행한 구성원이 대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시청자가 만드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부담 없이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를 통해 일반 시민이 관공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대전지역의 상수도 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접근이었으나 정보공개에 치우치며 지역 상수도 상태에 대한 정보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대전MBC에서 추후 뉴스를 통해 취재하거나, 해당 프로그램과의 후속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후속 진척 상황을 알려주신다면 좋은 방송 소재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배재대학교를 비롯하여 대전·충남권 9개 대학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그리는 세상'을 통해 시청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송 콘텐츠의 정착과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선재 위원장)

답변 : 프로그램의 특성 상 완성도 측면에서 기성 방송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성도만을 바라보고 제작진이 개입할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회차를 거듭하고 경험이 축적되면서 시청자 제작단도 함께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방송으로서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플랫폼을 오픈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 9. 보도 : 노정렬의 시시각각

2019. 7. 14. 우리늬 수돗물 사태, 농어촌 상수도 안전한가?

7월 14일 우리늬 수돗물 사태 관련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의 우려가 크고 관심이 높은 주제인 만큼 시의적절한 편성은 좋았다. 다만 패널들의 우리늬 관련 비전문성으로 인해 안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판단을 돕지는 못했다고 본다. 기준치가 넘는 우리늬 식수를 먹지 않아야 한다면 대책은? 정수기는 방사능물질이 정수가 되나? 먹는 물은 사먹다고 하면 아닌 식재료를 씻거나 샤워는 괜찮나?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을 답해 주지 못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의 패널 선정이 아쉽다. (양흥모 위원)

2019. 7. 28. 대전 부동산 상승세 올 하반기 전망은?

7월 28일 대전 부동산 전망 관련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대전의 부동산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자극적인 자막으로 시작해 대전 부동산 시장 분석 및 투자 상황에 이야기가 이어지고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대책 및 투기억제 등 주택정책에 반대하는 주장들이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등 주제와 토론 방식의 문제가 드러났다. (양흥모 위원)

2019. 7. 7. 지역화폐 붓물, 지역경제 활로 될까?

정가이슈 - 판문점 회담 평가와 후속 대책은?

박정현 대덕구청장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진 공동대표가 출연해 ‘지역화폐 붓물, 지역경제 활로 될까’를 주제로 토론하는 코너가 방송되었다. 대덕e로움에 대한 관심이 대덕구를 비롯한 ~에 조금씩 퍼지고 있는 가운데 시의적절한 토론이었으며 출연자 섭외도 적절했다. 구청장이 대덕e로움을 친근하게 설명하는 모습이 편안하게 느껴져 보기 좋았고, 지역화폐 도입 배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지역경제에 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만드는 방송이었다. 정가이슈 코너가 상대적으로 어둡고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했으나 그만큼 앞의 코너가 신선하고 생기발랄했다고 생각해본다. 편집은 적절한 화면 분할과 다양한 카메라 구도로 지루함 없이 시청할 수 있었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히 좋았다. 출연자의 말이 길어질 때 시청자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짧은 자막을 보다 자주 삽입한다면 더욱 보기 좋을 것 같다. (서한나 위원)

답변 : 시사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패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을 때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시 자막 등 후반부 작업의 경우 시간 등의 문제로

많은 에너지를 쏟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보다 짜임새있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 뉴스데스크

2019. 7. 30. 빈익빈 부익부 폭염속 그늘막.

폭염이 연일 지속되는 가운데 기사는 좋았습니다. 더운 날씨 각구별 그늘막 실태를 다루어 대책마련에 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경비원 에어컨, 폭염뉴스를 연이어 다룸으로 날씨에 관한 뉴스가 연속 3개가 이어지니 뉴스거리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배치를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부남 위원)

답변 : 폭염 관련 뉴스는 어떤 재난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전국적으로 4526명, 사망 48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에어컨 뉴스와 관련해 다른 시청자 위원께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미담이 소개되어 뉴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사회통합 기능이 발휘”됐다는 점을 지적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의 폭염 대응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어 보는 것은 뉴스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2019. 7. 2.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천안·아산 산업벨트 비상

충남의 주력 산업으로 전국 2위 생산량을 보이는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 등 지역의 관점에서 일본 수출 규제 강화 이슈를 짚어주어 유익

2019. 7. 2 대전 노후상수관 문제 ‘붉은 수돗물’ 우려

최근 전국 각지의 잇따른 ‘붉은 수돗물’ 사태로 지역민들의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에 상응하는 보도여서 시의적절. 또한 대전 지역의 안전을 주장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측 주장과는 별도로 대전 지역 역시 노후상수관의 이물질이 가정으로 유입될 수 있어 예외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대전시의 대책 미흡을 지적한 점은 바람직.

그러나 보도 도입 부분에서 붉은 수돗물이 나오는 장면은 자료화면 등의 표시가 없어 타 지역의 상황이라는 점이 명시되지 않아 대전시에서 발생한 듯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음

2019. 7. 2. 경비실 에어컨 설치

사건·사고 뉴스의 비중이 높아 뉴스 시청에 대한 부담감 또는 피로감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는데 아파트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로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한 미담이 소개되어 뉴스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사회통합 기능이 발휘됨. (양선희 위원)

답변 :

- 대전MBC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경제계의 대응을 심도있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 자료화면을 사용할 때에는 출처 표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문제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폭염 문제 대응과 공동체의 더불어 사는 삶을 조명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폭행 및 불법모금 관련 연속 보도

- 7.8 장애인 폭행 의혹, 전기충격기(단독)
- 7.9 불법 모금, 횡령 의혹
- 7.10 장애인 폭행 시설, 불법 모금 알고도 기부금품 모집 허가
- 7.11 대전시의 유감 표명
- 7.12 사회복지시스템 개편
- 7.17 불법 모금 향의 직원 부당 해고 의혹(단독)
- 7.24 보호자에게 '돈 요구' 의혹

장애인 시설에서의 폭행 의혹을 시작으로 불법 모금 및 횡령, 이에 대한 대전시의 허술한 행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 하나의 이슈에 대한 연속보도가 이루어져 책임 있는 보도 태도가 보였다. 그러나 단발적이고 파편적 형식으로 이루어져 앞선 보도를 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슈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도 있었다. 비중 있게 다루는 이슈에 관해 의제설정은 물론 의미있는 해결책 도출까지 일정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앵커와 문답 형식으로 해당 이슈의 시작단계부터의 과정을 짚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노정렬의 시사각각>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양선희 위원)

답변 : 대전의 모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폭행 문제는 대전MBC가 연속보도하고 있으며 보도 이후 대전시와 경찰, 장애인단체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후속 대

응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관련자들에 관한 경찰 수사가 검찰로 송치된 단계이며 수사 기관이 수사를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하면 취재 및 수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7. 16 대전버스파업 임박 - 협상현장 연결

첫 번째 아이템으로 대전버스파업 협상 현장을 연결하여 생생함이 전달되는 듯 했으나 일반 리포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되어 차별점을 찾을 수 없었다. 앵커와의 질의, 응답도 없었고, 클로징에서 다시 현장 화면을 내보내지도 않아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나 실효성을 찾기 어려웠다.

비슷한 사례로 7월 25일 “200mm 장맛비, 폭우 피해 속출”에서도 폭우가 쏟아진 천안 현장을 연결했으나 연결 이후로는 다시 스튜디오와의 연결이나 질문 없이 일반 리포트와 동일한 형식으로 진행, 종료되었다. 현장 연결의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문답형 리포트 등 포맷의 변화가 요구된다. (양선희 위원)

답변 :

각종 특보상황을 중계방송할 경우 현장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포맷을 개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2019. 7. 22 농사일 가다 참사, 10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

중앙의 뉴스에서 다뤄진 사건을 지역에서 보도하는 경우, 판박이 같거나 끝부분만 조금 다르게 구성하는 등 차별화가 되지 않아 시청자가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10년 전 사고화면을 찾아 뉴스를 만든 점은 인상적이었다. 다만 사고 전력을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의 근본적 원인인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등의 현실을 짚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양선희 위원)

답변 : 타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지만, 운전자의 사고 전력상 충남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사고가 있었다는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확인한 결과 관련 기사와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농촌 인력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는 보도에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겠습니다.

2019. 7. 29 빠르고 넓게.. 지역에도 퍼지는 선한 영향력

SNS를 중심으로 결식아동을 돕는 자영업자의 선행 사례 보도는 봉사활동의 새로운 모델 발굴과 소개로 지역사회 확산에 영향을 주는 좋은 보도라고 생각한다. (양흥모 위원)

2019. 7. 29 [리포트] “에너지를 팝니다” 신개념 건축물 도입

아산시 제로에너지 건물(도서관)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건축 모델과 에너지정책을 생생하게 소개한 좋은 보도. 외국사례와도 비교해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지역 자치단체의 에너지전환 행정을 발굴 소개한 부분이 돋보인다. (양흥모 위원)

답변 : 다른 지역에서 이른바 ‘선한 영향력’이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를 바탕으로 지역 실태를 취재한 결과 운동에 동참하는 업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공동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사회 현상의 현장을 더 많이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실천 사례, 석탄 에너지 감축 시도 등에 관한 의미있는 활동을 뉴스를 통해 적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